



소년은 자란다

- * 글 : 이지현
- * 출판사 : 단비청소년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60쪽 * 수준 : 7단계(중학생)

· 책 소개

이 작품의 주인공 영우는 열네 살 중학생이지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키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고통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영우와 함께 아버지 몰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살게 된 영우는 또 다른 동네 불량배의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박 영감 할아버지에게 네 명의 아이들과 택견을 배우고, 김명순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우는 어떻게 폭력의 그늘을 벗어나며 스스로를 지키는 소년으로 자라는지 읽어봅시다.

· 독후활동 주제망





독서 전

1. 이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1	(예) 소년이 맨발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	
3	

2. 『소년은 자란다』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시간이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마!
너는 지금 자라는 중이니까.”

감투바위에서 봤던 발자국이 생각났다.

“그때 스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줄 아느냐?”

“.....”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너에게 해 줄 줄은 몰랐구나. 시간이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지금 자라는 중이야.”

말을 마친 할아버지가 빙긋 웃더니 “십 년쯤 지나면 네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니?” 했다.

1) ‘스승님’이 ‘할아버지’에게 말한 내용과 그 말을 한 이유를 쓰세요.

⇒

2) ‘할아버지’가 말한 내용 중에서 몰랐던 것과 ‘나’에게 궁금한 것을 각각 쓰세요.

⇒ • 몰랐던 것 :

• ‘나’에게 궁금한 것 :

3)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느꼈거나 생각했던 경험을 써 보세요.

⇒



독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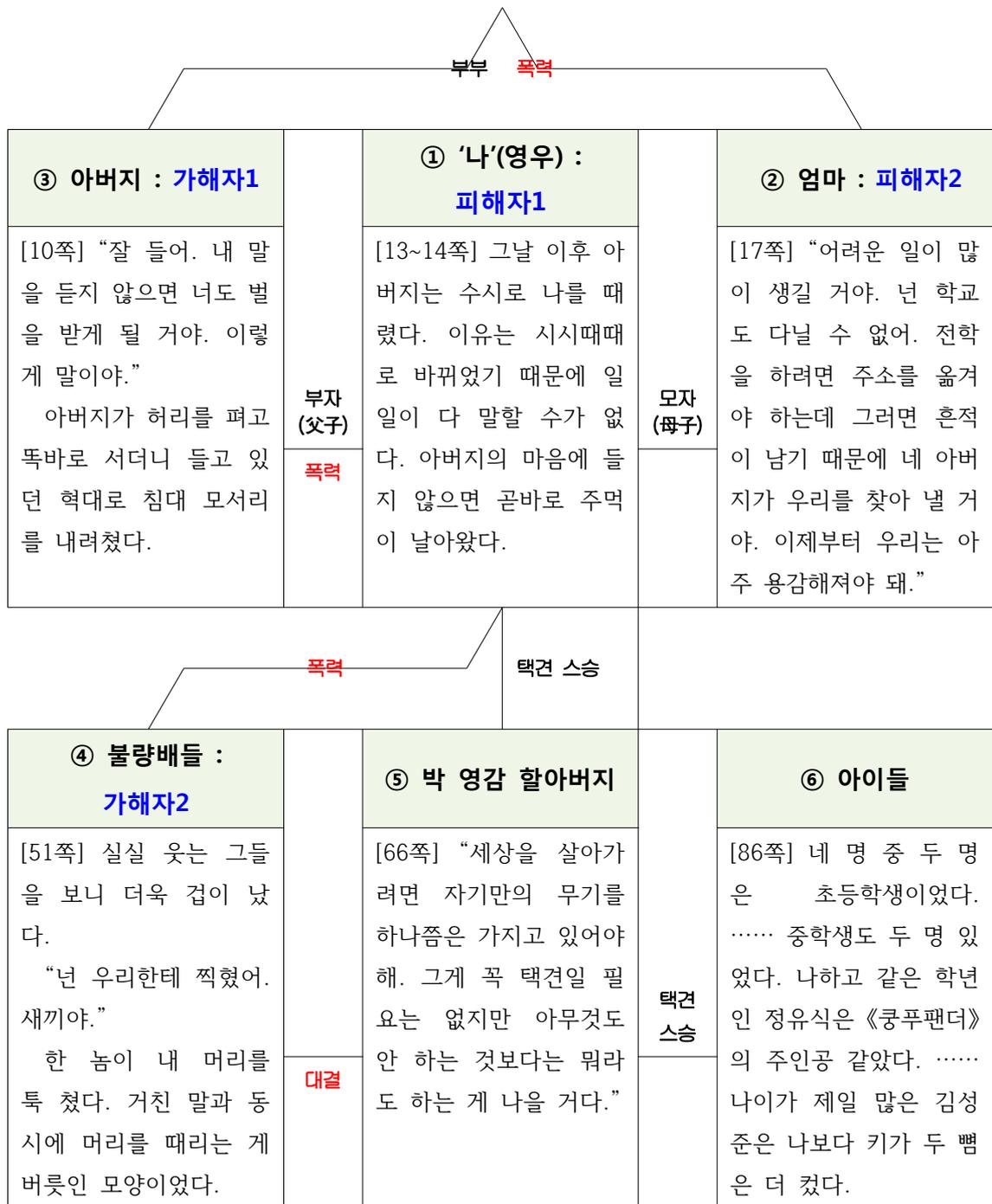
※ 『소년은 자란다』를 읽으면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들을 아래 (예)처럼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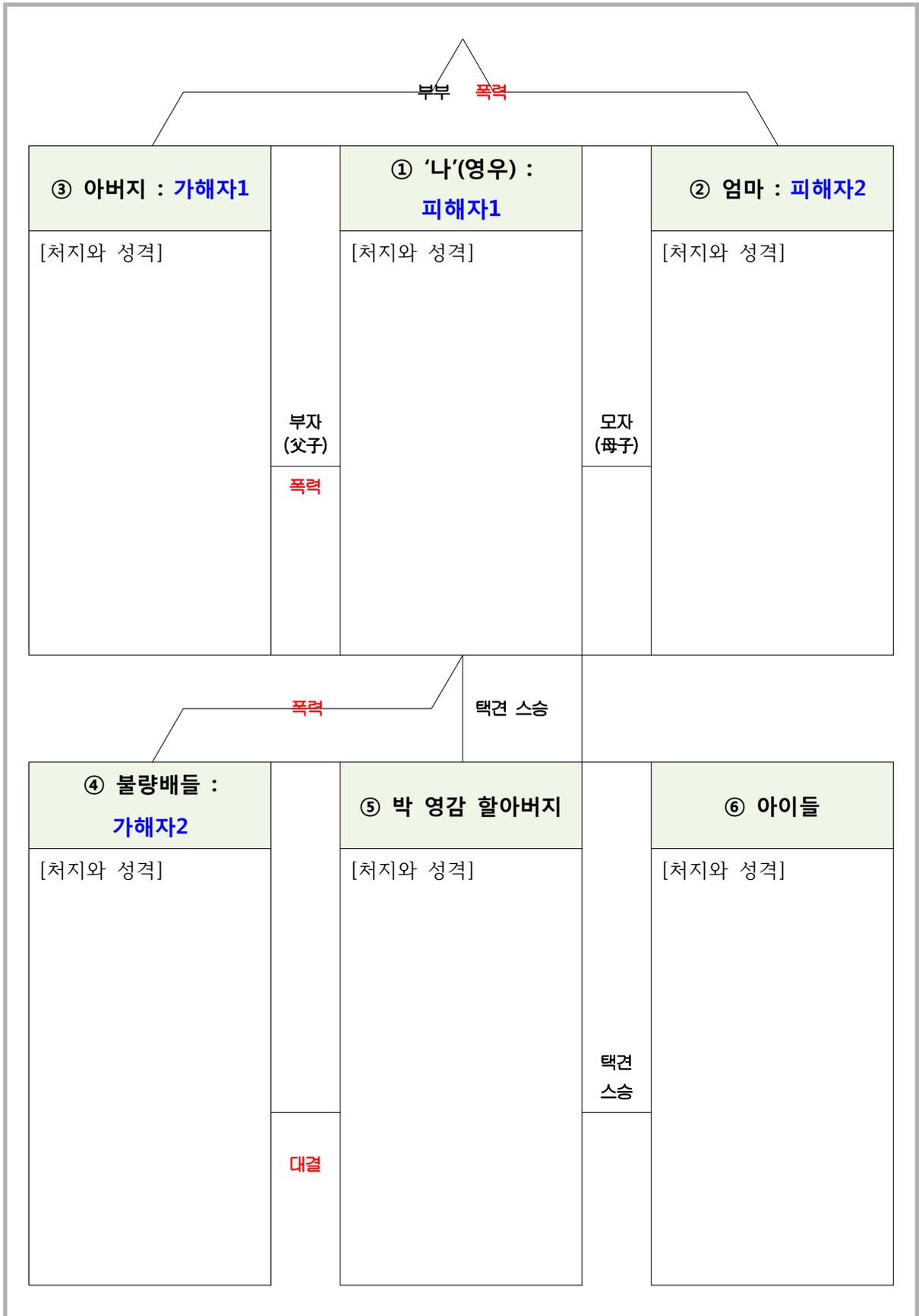
어느 부분인가요?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p>(예) [13쪽] 아버지는 왜 괴물이 되었을까? 이유를 알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될 수 없다. / 매를 맞고 나면 온 몸에 멍이 든다. 몸에 든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에 든 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영혼을 잠식한다.</p>	<p>(예) '나'(영우)가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그가 왜 괴물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며 그를 이해해 보려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몸보다 마음에 든 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에서 가정폭력이 끼치는 악영향을 알 수 있어서 끔찍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다.</p>



독서 후 ① 등장인물의 관계

※ 『소년은 자란다』에 나온 등장인물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표에 제시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을 다음 페이지 빈칸에 정리하여 쓰세요.







독서 후 ② 불량배의 폭력에 대한 대처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때 멀리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 ‘살려 주세요!’ /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다. 아버지는 내가 소리를 지르면 더 심하게 매질을 했다. 나는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 나올까 봐 입술을 앙다물었다.

말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들이 발길질을 멈추었다.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빌었다.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다가 나를 봐 주기를, 그리고 구해 주기를……. 그런데 한 가지는 이뤄지고 한 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고도 지나쳐 간 것이다. / 나는 절망했다.

(나) 놈들이 내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나는 계속 비명을 지르며 발길질을 했다. 여기저기서 창문 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몇 대 더 때리더니 도망을 쳤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 “괜찮아, 학생?” / 맞은 편 건물에서 어떤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며 물었다. 그만큼 맞았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입술도 당나발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손등으로 흘러내린 코피를 닦았다. 얼굴이 부어올라 늙은 호박만 해진 것 같았는데도 이상하게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당황한 얼굴로 도망치던 그들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아버지가 한사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괴물도 부끄러움을 아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조심하는 거다. / “아, 아, 아, 아~.” /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담벼락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한다고 김명순 할머니가 말했다.

1. (가)~(나)에서 ‘나’(영우)가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겪으면서 생각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나’(영우)의 변화한 태도를 정리해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나’(영우)의 변화한 태도
(가)		
(나)		

2. '나'(영우)가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가)의 '아주머니들'과 (나)의 '어떤 아저씨'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2.

3. '나'(영우)가 떠올렸던 '김명순 할머니'의 말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3.



독서 후 ③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매를 맞고 나면 온 몸에 멍이 든다. 몸에 든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에 든 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영혼을 잠식한다. 폭력은 성장도 멈추게 할 만큼 나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내 몸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키도 초등학교 5학년에 머물러 있었다. / 그날 이후 아버지는 수시로 나를 때렸다. 이유는 시시때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주먹이 날아왔다. 매를 맞다 보면 내 몸이 점점 줄어들어 딱정벌레나 바퀴벌레가 되어 버린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다. 그대로 짓이겨져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다. 먼지가 되어 훌훌 날아가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사라져 버리고 나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나)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아버지와 맞서겠다고 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엄마도 달라졌다. 무엇이 엄마를 변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마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 나는 엄마를 지키고, 엄마는 외할머니를 지키고, 무광 아저씨는 또 나를 지키고, 그러고 보니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었다. 우리를 지켜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진짜 엄청 든든한 거다.

1. (가)에서 '나'(영우)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 나타난 몸과 생각의 변화를 정리하여 쓰세요.

몸	생각

2. (나)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해 '엄마'와 '나'(영우)의 변화한 태도를 정리하여 쓰세요.

엄마	'나'(영우)

3.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고 싶었던 '나'(영우)에게 위로하며 조언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hr/> <hr/> <hr/> <hr/> <hr/> <hr/>



소년은 자란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이지현 지음



정답과 해설

[독서 전]

- (예시답안) • 소년의 뒤쪽 배경에 있는 발차기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이 책에서 소년은 무엇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일까?
- 1)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음, 자신은 지금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2) • 몰랐던 것 :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을 '나'에게 해 줄 것
• '나'에게 궁금한 것 : 십 년쯤 지나면 '나'의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
- (예시답안) 수영장에서 친구와 오랫동안 잠수하기로 시합했는데, 물속에 잠수하자마자 금방 숨이 차올랐다. 그때 숨을 가쁘게 참으면서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독서 중]

(예시답안)

어느 부분인가요?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39~40쪽] “그만하고 집에 가, 이놈들아!” / 할아버지가 꺾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중 한 명은 짹짹 빈집으로 달려가 나무 막대기를 구해 왔다. “그 참 말로 해서 안 될 놈들이네.” 하며 할아버지가 허허 웃었다. 독기를 품은 아이들이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세 명이 다 무릎을 꿇고 길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여든 살에 가까운 박 영감 할아버지가 '나'(영우)를 괴롭히며 폭력을 가하던 세 명의 불량배들에게 꺾 고함을 지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 명이 다 무릎을 꿇고 길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드는 모습이 통쾌했다. 불량배들 중에 한 명이 짹짹 빈집으로 달려가 나무 막대기를 구해 오고, 아이들이 독기를 품고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했다.
[142쪽] 나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다짐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죽지 않겠다고. 할아버지 말대로 나는 자라고 있었다. 1년 사이에 키가 12센티미터나 컸으며 허벅지도 굵어지고 몸도 탄탄해졌다. 세상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김명순 할머니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도 생겼다.	'나'(영우)와 엄마가 살고 있던 박 영감 할아버지의 집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 서울을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1년 사이에 키가 12센티미터나 컸으며 허벅지도 굵어지고 몸도 탄탄해졌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도 생긴 '나'(영우)의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한 모습이 멋져 보였다.

[독서 후 ① 등장인물의 관계]

(예시답안)

① ‘나’(영우) :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성장이 멈추었으며 형체도 없이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고 싶어 한다. 아버지를 피해 엄마와 함께 서울로 도망쳐 왔지만, 다시 동네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된다. 박 영감 할아버지에게 택견을 배우고 네 명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② 엄마 :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서울로 도망쳐 와서 식당에서 일하며 ‘나’(영우)를 보살피며 살아간다. ‘나’(영우)의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나’(영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단호한 태도로 아버지와 맞서기 시작한다.

③ 아버지 : ‘나’(영우)와 엄마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괴물이며 가출한 엄마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양로원에 있는 ‘나’(영우)의 외할머니까지 찾아가 폭행한다. 결국 엄마가 모아 둔 사진들이 증거가 되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다.

④ 불량배들 : 덩치가 큰 세 명의 아이들이며 ‘나’(영우)가 자신들에게 찍혔다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다. 택견을 배우던 ‘나’(영우)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발길질을 하자 당황한 얼굴로 도망친다.

⑤ 박 영감 할아버지 : 엄마와 ‘나’(영우)에게 방을 빌려준 작은 기와집의 주인이고, ‘나’(영우)를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한 계기로 ‘나’(영우)에게 택견을 가르쳐 주게 된다. ‘나’(영우)가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⑥ 아이들 : 김명순 할머니가 데리고 온 네 명의 아이들이며 ‘나’(영우)와 함께 박 영감 할아버지에게 택견을 배우게 된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인상이 사나워 보이며 새침한 오윤아, 말이 많고 얼굴과 눈, 몸집이 동글동글해서 귀엽고 웃을 때면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하는 호빵맨 같은 장상백 등 두 명은 초등학생이었다. ‘나’(영우)하고 같은 학년이고 똥똥했으며 물렁물렁하고 성격이 좋아 보이는 정유식, 나이가 ‘나’(영우)보다 한 살 많고 키가 두 뼘은 컸고 나무젓가락처럼 뼈적 마른 몸에 팔다리가 길어서 사마귀를 연상시키는 김성준 등 두 명은 중학생이었다.

[독서 후 ② 불량배의 폭력에 대한 대처]

1. (예시답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	‘나’(영우)의 변화한 태도
(가)	아버지는 ‘나’(영우)가 소리를 지르면 더 심하게 매질을 했음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 나올까 봐 입술을 앙다물었음
(나)	아버지가 한사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도 부끄러움을 알았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조심했던 것임을 깨달았음	계속 비명을 지르며 발길질을 하자 불량배들은 당황한 얼굴로 도망쳤고, 이상하게 비참한 기분은 들지 않았고, 자신의 목청을 가다듬었음

2. (예시답안)

(가)에서 아주머니들은 ‘나’(영우)가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지나쳐 갔다. 이

렇게 동네 불량배의 일방적인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은 비겁한 태도이며 '나'(영우)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나)에서 어떤 아저씨는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당하던 '나'(영우)가 소리를 지르자 창문을 열고 내다보며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그가 창문을 열고 폭력을 당한 '나'(영우)에게 안부를 물어본 것은 (가)의 아주머니들보다 사람과 이웃에 관심을 기울인 태도이다. (가)~(나)의 어른들은 모두 불량배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3. (예시답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담벼락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한다는 말은 목소리와 표현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분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담벼락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외치며 알려야 한다는 뜻이고, 자신이 일방적인 폭력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외쳐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 후 ③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1. (예시답안)

몸	생각
폭력은 성장도 멈추게 할 만큼 악영향을 끼쳤고,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나'(영우)의 몸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키도 초등 학교 5학년에 머물러 있었음	매를 맞다 보면 '나'(영우)의 몸이 점점 줄어들어 딱정벌레나 바퀴벌레가 되어 버린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고, 그대로 짓이겨져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고, 먼지가 되어 흩날아가 버리고 싶었음

2.

엄마	'나'(영우)
더 이상 울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아버지와 맞서겠다고 했고, '나'(영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만든 것 같았음	이제는 자신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자신과 엄마를 지켜주는 진짜 엄청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음

3. (예시답안)

영우야!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네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니.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도 동일한 폭력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 엄마와 같은 단호한 태도와 절박함을 가지고, 너와 엄마를 지켜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폭력에 맞서며 외쳐야 해.